



제목	서양복식문화사
발행언어	한국어
발행처	(주)교문사
발행일	2014. 8. 13.
저자	정흥숙
출판국가	대한민국
페이지수	456
ISBN 또는 ISSN	978-8936314163

내용 요약

복식은 인간의 내면적 욕구와 미의식의 표현으로서 노출된 시대적 상황에 대한 반응수단의 하나이므로 한 시대의 예술분야로서 건축·조각·회화·공예 분야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그 시대의 예술양식을 표출하는 중요한 장르를 맡고 있다. 원래 복식은 생활 속에서 생겨나 생활과 걸음을 같이 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의지와 감정을 가장 잘 형태화시키면서 그 당시의 생활상과 사회상을 직접 반영한다. 따라서 복식은 자연적 환경을 포함한 각 시대의 정치체제, 경제상태, 사회조직, 예술양식, 종교 관념 속에서 인류의 정신활동의 발자취를 나타낸 문화사의 중요한 요소이다.

이 책은 예술양식사와 미적 가치관의 변천사의 관점에서 지난 5000여 년에 걸친 복식의 역사를 정리한 것이다. 각 시대별로 사회·문화적 배경, 복식의 개요, 의복의 종류 및 형태, 머리모양, 신발, 장신구 등으로 나누어 설명했다. 특히 고대 복식에서는 이집트, 메소포타미아, 크리트, 그리스, 에트루리아, 로마로 나누어 각 문명의 복식을 묘사하고 있으며, 이 중 메소포타미아는 문명이 태동한 수메르를 시작으로 수메르인들의 문화와 종교, 법제들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들의 새로운 기술과 문화를 발전시켜 나간 바빌로니아,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통합한 최초의 제국인 아시리아, 뒤이어 이집트, 메소포타미아 및 인도와 에게 해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을 정복하여 각 지역의 문화를 흡수하여 발전시킨 절충적 성격이 강한 페르시아 복식을 확인할 수 있다.